제1강 서론: 기체조는 변화 중 I

(1교시)

초급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의 실체를 일상에서 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방법 20가지를 소개했고 또한 기체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으며 기체조가 서양체조나 운동과 다른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체조를 동작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초급편에 이어지는 중급편은 생활과 일터의 각 분야에서 기체조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초급편을 강의할 무렵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벌써 훌쩍 4년이 지났습니다. 산이 많은 이곳은 농촌이라기보다 산촌이라고 해야 맞을 듯한 곳입니다. 4년 동안의 산촌생활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또한 적지 않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집 앞의 개울에는 도롱뇽과 가재가 많아졌고 반딧불이가 날며 버들치나 깔딱메기같은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이곳의 아이들 놀이 명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을 하러 옵니다. 이것은 개울을 끼고 있는 밭에서 농약과 비료, 그리고 제초제를 완전히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농사를 다섯 해째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런 소득을 얻어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군 전체가 3무운동을 펴고 있는데 3무가 바로 농약, 비료, 제초제를 안 쓰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비료를 안 쓰고 어찌 하려느냐고 말도 많이 들었고 다짜고짜로 자기 제초제를 가져 와서 뿌려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4년이 되니 이제 조그만 결실이 생기는군요.

고야를 아십니까? 밀고야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에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이런 이름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피고 있는 고야 꽃입니다. 고야열매는 대추처럼 생겼는데 대추보다 약간 큰 것이 맛은 떫고 신맛이 나고 단맛은 약합니다. 이것을 토종자두 또는 야생자두라고 하지요. 아마 자두의 순우리말인 오얏의 지방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자두는 거의 서양자두거나 일본자두입니다. 그런데 자두는 색깔이 다 붉은 계통인데 노란 놈이 있지요. 그것을 밀고야라고 부릅니다. 삼년 전 동네 깊은 계곡에 갔다가 작은 폭포 옆에 서있는 이놈을 보고 나는 무릉도원을 연상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야열매가 노란 밀색을 띠고 있어서 밀고야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고야나무가 있었다는데 서양자두가 들어오고 나서 다 잘라내고 지금은 깊은 산에 가야

www.artnstudy.com

겨우 한두 그루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밀고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삼십 그루를 얻고 찾아내서 밭에 심고 가지치고 씨를 받고 하는 중입니다.

아마 이미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토종 고야와 동병상련의 심정입니다. 토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칼날 같은 기로에 서있는 것이지요. 제가 살아남듯 고야와 밀고야도 많이 퍼뜨려서 전국에 퍼지게 하겠습니다.

기체조의 과학화

얼마 전 일본에 유학을 가있는 제자에게서 행동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다시 자신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체조의 과학과 행동과학이 상당히 근접해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행동과학이 중국의 인체과학과 함께 지금 크게 유행한다는군요. 우리와 접근방식이 다를 뿐 의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세 동작들이 몸과 마음과 기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데에는 한가지입니다. 사람을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학이란 분야로 발전되었고 의학은 또 다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체과학이니 심신의학이니 하는 말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는 것이 행동과학입니다. 기체조 분야는 행동과학에서 퍼져나가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제목으로 보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도를 말하는 책쯤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전자공학박사가 쓴 책입니다. 전자공학박사가 한반도의 대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공학에도 점치고 운명을 따지는 분야가 생긴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충웅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전자과학의 입장에서 기의 실체를 밝히고 또한 그런 원리를 응용해서 우주통신장비를 만들어내려고 연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보면 "우주시대를 살려면 전파보다 훨씬 빠른 통신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려면 우주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 이러한 새로운 것은 우주의 근본인 기에서 찾아야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의 책이 전자과학의 입장에서 본 기연구서라면 <첨단과학으로 밝히는 기의 세계>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쓴 책이고 <기과학>은 화학적 입장에서 본 기입니다. 북한의 의사 김봉한이 서양 의학적으로 기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한 가지 모습만을 지닌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고 그런 모습을 다 합쳐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체조를 과학화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체험과 전통에 의지해서 해보면 안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에 갇혀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개방하고 무한경쟁에

www.artnstudy.com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문파의 좁은 틀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도 이제는 넘어야할 때입니다. 그런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원칙이 바로 과학화입니다. 이제 우리도 실험을 하고 원칙을 세우고 실패도 인정하고 경쟁도 할 것입니다.
서구를 휩쓸고 있는 행동과학처럼 과학 논문도 내놓고 관련학계의 비판과 질책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놓는 기체조가 이런 새로운 과학적 검증을 다 거치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전의 것에 비해서는 많은 검증을 거치고 변화를 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www.artnstudy.com